

제주 사립작은도서관 비율 최다... 장서는 빈약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제주지역 사립 비율 96.5%
새마을문고 운영이 75.4%
공·사립 소장자료 갑절 차
지자체 등 지원 29% 그쳐

전국 사립작은도서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작은도서관 1관당 소장 자료는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 발간한 '작은도서관 정책 연구 결과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결과 2018년말 기준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은 6330개에 이른다. 공립 1433개관, 사립 4897개관이 분포했다. 제주 지역은 143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유형별로는 공립작은도서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45.4%(129개관)를 차지하고 서울이 43.1%(423개관)로 뒤를 이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제주 지역 비율이 96.5%(138개관)로 가장 높았고 충북 94.4%(221개관), 세종 91.1%(51개관) 순이었다.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를 보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은 개인·민간단체 설립의 비율이 높았다. 제주 지역은 경북과 더불어 새마을문고 운영 비율이 높은 곳으로 분류됐다. 제주 지역 새마을문고 비율은 75.4%(104개관)로 전국 최다였다.

소장 자료는 1관당 평균 6168권으로 파악됐다. 평균 이상인 광역지자체는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경기 등이고 제주를 비롯 부산, 광주, 대전, 세종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제주 작은도서관 평균 장서는 4367권인데 공립 8642권, 사립 4212권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제주 작은도서관 연간 증가 자료수는 평균 516권보다 낮은 378권으로 드러났다.

인적자원 현황에서는 제주지역 작은도서관 직원수가 평균 0.7명이었고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평균 자원봉사자는 4.8명이었는데 제주는 그보다 낮은 3.2명이었다. 반면 제주는 직원 대상 전문교육 시간이 24.0 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도서관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평균 운영 예산은 1234만1000원이었다. 대구가 1706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497만3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제주는 993만8000원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운영위원회는 전국 작은도서관의 56.7%가 구성됐다. 제주는 구성 비율이 81.8%였는데 연4회 이상 운영위가 열린 경우는 32.5%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개최 실적이 없는 작은도서관도 9곳이었다.

시설 면에서는 제주 작은도서관 평균 면적 113.7㎡, 평균 열람석수 34.1석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관외

대출은 118개관(82.5%)에서 시행중이었다.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보유 작은도서관 비율은 전국 평균에 못미친 76.9%(110개관)로 집계됐다.

공공도서관 연계와 관련해서 제주는 상호대차 이용 비율이 9.8%였다. 순회 사서 지원 비율 역시 제주는 7.0%에 그쳤다. 지자체와 공공도서관 지원 현황에서는 제주 지역이 공립 100% 지원에 비해 사립은 29.0%만 지원했다.

보고서는 "작은도서관 설치 시 충족해야 하는 장서의 기준(1000권 이상)을 상향 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양질의 도서를 구비하고 지속적인 장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장서 구성, 연간 증가 장서에 대해서도 조례 등을 통해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운영에 동의하는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공립으로 지정하는 등 우수운영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재만의

제주어기암한판

<198>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맨, "아고- 좀네가 방풍누를 반찬 잘도 맵글아신게. 코시롱 하게 넘어 넘어 맛 좋은게. ○맹이아-는 어떻게냐?"
○맹이 골맨, "에, 하르바지. 나 방풍을 잘 하여와수게양? 방풍누를 반찬이 요양 맛있는 걸 몰란마쑈게." 나가 방풍 잘 하여와수게양?
좀네 골맨, "하르바지- 방풍누를 반찬 하여 하여마쑈. 맛 좋덴한 고맙수다. 하여 드십시오."
하르바지 골맨, "기여- 옛날부터 방풍은 불리를 약재로 썼어. 불리 7슬에 과당 뱃디 잘 들렁 놔뵈당 말렁 먹는덴 하여라. 고히 걸렁 열 나민 열너러보젠 쪼엿젠도 후국 중풍, 관절염, 신경통에도 좋아엔 하여져."

*** 제주어 풀이**
*코시롱하다(코송하다, 코싱하다, '쿠수롱하다, 쿠송하다, 쿠송하다, 쿠시롱하다, 쿠싱하다'의 작은 말) : <그림> 맞이나 뽀새가 비위에 맞아 고소하다.
*잘 하여와수게양? : 잘 해왔지요? *방풍누를 반찬 : 방풍나물 반찬.
*몰란마쑈게 : 몰랐는데요. *하여와수게양? : 해왔지요?
*불리(밭, 불휘, 불희, 불리, 뿌랭이, 뿔희) : <어름>식물의 뿌리, 허물의 근원.
*뱃디 잘 들렁 : 햇빛에 잘 말려서.
*고삐 걸렁 열 나민 : 감기 걸려 열이 나면.
*쪼엿젠도 후국 : 쓰엿다고도 하고. *좋아엔 하여져 : 좋아졌다고 했지.

-부호><어름>어름(명사)<그림>그림(명사)<울적>울적(동사)<여제>여제(부사)<대어름>대어름(대명사)<뽀>뽀(수사)<느낌>느낌(감탄사)<또>또(조사)<뽀>뽀(조사)<의은말>의은말(속담)<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 1991)
고재민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코로나 대응 비대면 종교집회 지원

200인 이하 종교단체 대상
내달까지 온라인 활동 지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종교집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나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승차 종교활동을 위해 한시적인 소출력 무선국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문체부는 이달 8일부터 5월 말까지는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

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누리집에 자세한 내용이 올라있고 전화(국번 없이 1433-1900)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종교활동과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현장 종교활동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부처 간 협력도 이어진다. '승차 종교활동'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교인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걸 말한다.

현재 제주에서는 조계종, 태고종 등

불교 사찰들이 법회를 중단한 상태로 이는 일정을 늦춘 부처님오신날 불축식이 예정된 5월 30일까지 유지된다. 원불교제주교구는 이달 12일까지 법회를 중지하기로 했다.

반면 천주교제주교구는 지난 4일 저녁부터 미사를 재개했다. 제주교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미사 참여 예절'을 공유하며 미사 거행시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개신교계는 지난달 22일 이후 현장 예배 교회가 수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현장 예배 교회가 느는 만큼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키는 교회도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신춘문에 당선자 신작시로 문학의 봄

계간문에 '다층' 봄호 특집
당선작 읽기와 신작 2편씩

계간문에 '다층'의 봄은 신춘문제로 열린다. 매년 봄호에 한라일보 등 전국 각지 신춘문에 시·시조 당선자들의 신작시로 특집을 꾸미기 때문이다. 통권 85호로 묶인 2020년 봄호도 다르지 않다. 17개 신문사의 시 당선

자, 9개 신문사의 시조 당선자가 원고 청탁을 받고 신작을 제주로 보냈다. 한라일보 신춘문에 시 당선자 이도훈 시인은 '안도하는 저녁'과 '옛 갈리는 일'을 실었고 시조 당선자 이선호 시인은 '가리봉등을 아십니까?' , '도우, 눈뜨다'를 선보였다.

제주 김효선 시인은 '당선작품 읽기'를 통해 신춘문제로 화려하게 등단한 이들이 "세렝게티의 초원"에서



부디 살아남아 "지면에 실린 시인들의 이름을 오래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 박명숙 시인은 시조 '당

선작품 읽기'에서 "다중한 소재들을, 다양한 시선과 관점으로, 다기한 방향과 길을 모색하면서, 내면과 외면의 깊이와 폭을 부단히 심화, 확장시

켜 나가야 하는 복무를 외면하지 말기를, 당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 호에는 이와함께 젊은 시인 7인선(배옥주 이수미 남길승 최분임 정우신 강연우 문혜연), 젊은 시조시인 3인선(김정숙 성국희 김석인)을 담았다. 다중소시집은 김유석 시인이 주인공이다. 다중산문예선 이광진의 '제주도 신화 산책' 첫회 '전염병과 신들', 변종태의 '제주 오름 이야기'를 볼 수 있다. 1만원.

신선희기자 sunny@ihalla.com

'나도 예술가' 결과물 전시 아트센터 예술교육 4건

제주시 삼도2동 옛 제주대병원에 들이선 예술공간 이아에서 '나도 예술가'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3일 시작돼 4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엔 이아에서 지난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시행했던 어린이 레지던시 프로그램 결과물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토요일마다 실시된 '나도 예술가'에는 초등학생 총 30명이 참여해 사진, 애니메이션, 퍼포먼스, 입체, 회화 등으로 제주시 원도심 동네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 작품은 이아 1층 로비와 2~3층 슬로프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제주아트센터가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의 2020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4건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성인 대상 '관악기야 고치글라', '제주이주민합창단', '클래식 고전음악감상'과 청소년 대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청소년오페라이야기'다. 프로그램별 20명 내외의 총 80명을 모집해 이르면 4월부터 문화예술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날짜는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추후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축
취 임
(사)한국농업마이스터협회
제4대 중앙회장



현 성 익
(사)한국농업마이스터대학협회
제4대 중앙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축
취 임
제32대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



강 한 일
(前 제주강씨 재경 종친회장)
제32회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진주강씨 제주도 총회 회장 강원희
진주강씨충정공파총친회 회장 강명철
진주강씨 제주도 청년회 회장 강영로
진주강씨충정공파청년회 회장 강봉재

축
취 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대 제주본부장



양 은 범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제25대 회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대 제주본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회장 **백 영 종** 의 회원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ihalla.com**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MBC'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